

등록번호 2010-0005

TheTOP Edu-Maker
최고의 교육 메이커, 동부교육청

꿈 · 보람 · 만족이 있는 활기찬 동부교육

2010 중학교 논술지도교사 연수

2010. 4. 22(목)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http://dongbu.ice.go.kr>

상인중학교

등록번호 2010-0005

TheTOP Edu-Maker
최고의 교육 메이커, 동부교육청

꿈 · 보람 · 만족이 있는 활기찬 동부교육

2010 중학교 논술지도교사 연수

2010. 4. 22(목)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http://dongbu.ice.go.kr>

상인천중학교

목 차

1. 창의적인 논술문 쓰기 방법

.....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욱우균

2. 논술 첨삭지도의 실제 인천남동고등학교 교사 최남현

<부 록>

1. 2010학년도 동부 푸른 독·토·논 교육 추진계획

2. 2010학년도 중학교 논술지도교사 연수 일정

3. 2010 중 논술지도교사 연수 대상자 명단



창의적인 논술문 쓰기 방법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육우균

ywg66@hanmail.net

내 용 목 차

- I. 개 관
- II. 글쓰기의 중요성
- III. 창의적인 논술문 쓰기 방법
- IV. 논술문 작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 V. 전략의 적용
- VI. 제 언

I. 개 관

학생들에게 논술은 그야말로 부담스러운 애물단지다. 학생들은 평소에 수능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수업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수능 이후에 몰아치기식 논술지도를 받게 된다. 대부분 학교에서의 논술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논술문의 결과물에 대해 교사가 등급을 표시해 주거나 친절한 경우 첨삭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사 또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각 단계별 전략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은 논술을 스스로 알아서 체득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고 보고 학생들은 가뜩이나 배경지식도 없고 글쓰기에 대한 경험도 부족한데, 기출문제를 보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급기야 사교육 시장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작 찾아간 논술학원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고전 요약본이나 주요 개념에 대한 강의를 통해 배경지식을 급조한 뒤, 주어진 주제에 대해 글을 쓰게 하고 모범답안을 중심으로 첨삭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지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첨



작의 과정은 결국 일정한 유형으로 획일화되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개성적인 답안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논술학원에 다닌 학생들의 답안 87%이상이 천편일률적이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단계를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학생들에게 숙지시켜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창의적인 논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

II. 글쓰기의 중요성

21세기의 진정한 리더는 ‘소통’을 잘하는 리더다. 믿음은 소통을 낳고 소통은 자율과 책임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통을 잘하려면 글쓰기를 잘 해야 한다. 글쓰기 중에서도 특히 논술을 잘 해야 한다. 논술은 바로 원만한 의사소통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나 CEO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진정성이 담긴 글을 자주 올린다고 한다. 이제 과거처럼 군기잡는 리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진실된 메시지와 소통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는 신뢰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세계적인 리더 양성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글쓰기 교육에 올인한다. 글쓰기를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교의 글쓰기 프로그램에는 ‘Expos 10, 20, 52’ 등이 있다. ‘Expos’의 목적은 훌륭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 훌륭한 사고는 훌륭한 글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글쓰기는 생각을 키워 주고, 자료 수집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접하게 해 주며, 세대 간 ‘소통’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고의 정리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글쓰기보다 유효한 수단은 아직까지 없다고 보는 것이다.(유병률, 『딜리셔스 샌드위치』, 웅진윙스, 2008)

우리나라도 최근 각 대학에서 글쓰기 관련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이는 취업이나 승진에서도 지식평가보다는 능력평가, 즉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글쓰기(논술)는 대학 입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생존 도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게 해 주는 것 역시 글쓰기를 통해서이다. 요리, 등산, 공부 방법, 자녀 교육 등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은 그 분야의 노하우를 거의 책으로 만들어 발간한다. 최근 발간된 빅뱅의 『세상에 너를 소리쳐』나, 차인표의 『잘 가라 언덕』과 같은 책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I. 창의적인 논술문 쓰기 방법

창의적인 논술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다면적 사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과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익혀야 한다.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교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니스커트 열풍 현상’에 대해 심리학적(개인적 취향과 기호, 자기 과시나 노출 심리), 역사적(최초 제작 시기와 유행, 우리나라 최초 착용자), 경제학적(경기불황과 치마 길이), 사회·문화적(유행, 트렌드 연예인 모방 풍조), 사회학적(사회적 포용력과 공감대의 차이), 예술적(단순미, 자연미의 추구) 논리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심층적 사고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최초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땅으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사고로, ‘그런데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사고로, ‘그러면 왜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은 그 중심인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나?’하는 사고로 점차 심화되면서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심층적 사고 또한 교과서 각 단원의 마무리에 있는 ‘심화학습’이나 ‘생각해 볼 문제’ 등을 꼭 풀어봄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

셋째는 영역전이적 사고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이 다른 교과서의 단원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응용해 보고 이를 문장으로, 도형으로, 수식으로, 그래프로, 좌표로, 분포도 등으로 과감하게 표현해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고를 밑바탕으로 하여 논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독해하여 내용을 생성해 나가야 한다. 이때 특히 중요한 것은 문학 작품의 활용이다. 창의적인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학 작품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의 주제 자체가 문학에서 추구하는 삶의 총체성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즉 문학이 다루는 주제는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등 다양하다. 세분화면 인간의 존재 조건, 삶과 죽음의 문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와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윤리, 과학의 사회적 기능, 예술과 과학의 조화 등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문학은 주인공들의 갈등과 논쟁의 마당이고 그 갈등과 논쟁을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로 풀어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잘 정독해 보면 그 속에 창의적 논술이 갖추어야 할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셋째, 문학은 통념을 깨고 새롭게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형상화한다. 즉 그



시대의 고정 관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일종의 아방가르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봄을 주제로 한 시를 쓴다면 기존의 시에서는 개나리, 진달래, 나물 캐는 처녀 등의 식상한 표현이 주류를 이루지만, 현대에는 이를 새로운 발상의 형상화(일명 낯설게 하기)로 표현한 시들이 나타나 보다 창의적인 사고를 조장한다. 예를 들어 “탕, 탕, 탕./이어 붉은 피가/여기서도 탁, 저기서도 탁/온통 피범벅이다./ 전쟁이다.”하는 식으로.

넷째, 문학은 다양한 가치 체계의 정당성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다. 모든 신선한 사고의 본질은 다시 생각하기, 되짚어 생각하기에서 나온다. 노예가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폭압적이라고 해도 탈피할 길이 트이지 않는다.

다섯째, 문학 작품을 매개로 활용할 경우에는 학생 필자의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이 소재로 활용되기도 하고, 문학 작품의 내용이 소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문의 작성이 보다 용이하고, 일부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의견이나 주장을 펼칠 수 있어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가 쉽다. 학생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논술 과제가 문학 작품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논술의 서두를 풀어가기가 쉽고, 문학 작품의 등장인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논술문을 구성할 수 있어 논술에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창의적인 논술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에 대한 풍부한 예들과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논의를 결부시킴으로써 논의의 중요한 마디마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검토를 집어넣음으로써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해주어야 한다.





IV. 논술문 작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1단계 : 문제 발견하기 (논제 분석하기 전략)

논제에는 출제자의 문제 출제 의도와 채점 항목, 그리고 제시문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야 할 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제에 밑줄을 그어가며 요구사항 등을 항목화해야 한다. 논제 분석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논제 및 논제 분석〉

[제시문 1]은 기계의 발달이 시장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시문 2]는 철도의 부설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켰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시문의 핵심사항에 대한 정보) ①두 제시문의 논지를 발전시키고 ②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③산업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계의 발전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④이러한 변화가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⑤논술하시오.

- ① 논술 동사(논의하라, 비교하라, 대조하라, 설명하라, 논술하라, 평가하라, 요약하라 등)를 찾는다.
- ② 논제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다.
- ③ 논술문에 들어가야 할 목록을 파악한다.
- ④ 답안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된 숫자 즉 하나의 이유, 세 가지 원인, 여러 원인, 몇 가지 방식 등을 찾는다.
- ⑤ 논제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 ⑥ 문제의 요구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 요구사항들 사이의 비중도 가늠하고, 요구사항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 관계도 따져 보면서 접근해야 한다.



1단계 : 문제 발견하기
(제시문 독해하기 전략)

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시문 독해의 관건이다. 평소 문학작품의 이해와 감상 능력이 요구되고, 비문학의 경우에는 단락별 소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의 9요소를 제시문 독해에 적용하면 독해를 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비판적 사고의 9요소를 3단계로 분류하여 1단계의 요소들(문제, 개념, 결론)은 대개의 글에서 쉽게 분석해 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지문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3단계의 요소들(관점, 함축, 맥락)은 아주 미묘하거나 복잡한 내용의 지문을 이해할 때 분석해야 하는 요소들이고, 2단계의 요소들(전제, 정보, 목적)은 중간 정도의 우선성을 가진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비판적 사고의 9요소에 따른 분석〉

가벼운 죄에 중벌을 주면 경미한 범죄는 생기지 않게 되니 중한 범죄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안정되게 통치를 하는 방법이다. 형벌을 줄 때 중죄를 중하게, 가벼운 죄를 가볍게 다스리면 가벼운 죄가 그치지 않으니 중죄를 그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통치인 것이다. 따라서 가벼운 죄에 무거운 형벌을 내리면 범죄가 없어지고 일이 성사될 것이며 국력이 강해진다. 중죄에 중벌을, 그리고 가벼운 죄에 가벼운 벌을 주면 형벌을 주어야 할 사건이 계속 터지게 되어 국력이 약화될 것이다. (한비자, 「설민(說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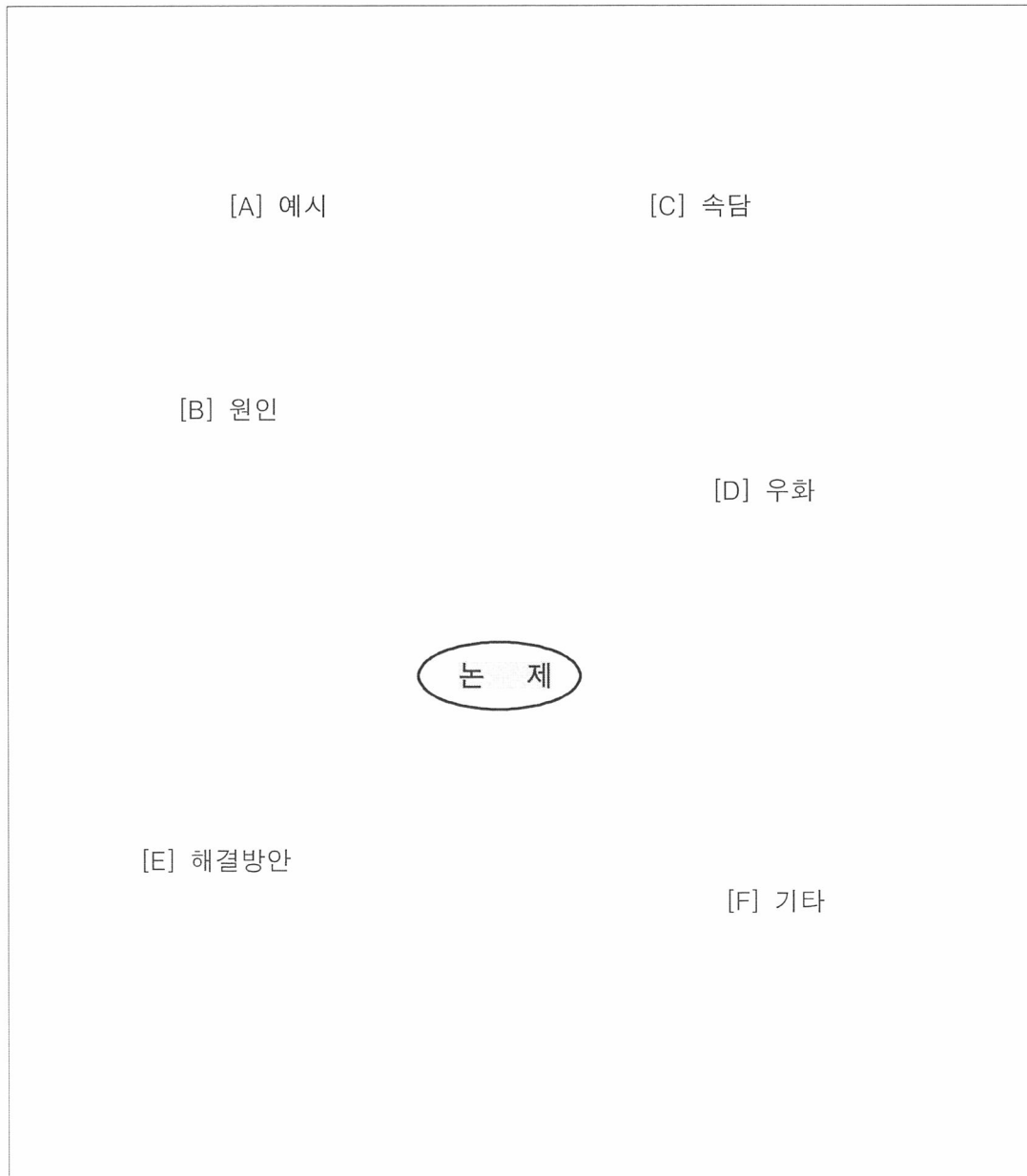
1. 문제 : 범죄를 어떻게 없애나?
2. 개념 : 중죄, 가벼운 죄, 중벌, 가벼운 벌, 안정된 통치, 국력
3. 결론 : 경미한 죄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
4. 전제 : 중죄는 경미한 범죄에서 생긴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국가의 안정과 혼란은 통치자의 능력에 달려있다. 형벌과 통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5. 정보 : 가벼운 죄에 중벌을 주면 경미한 범죄는 생기지 않는다.
6. 목적 : 안정된 통치를 하여 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
7. 관점 : 결과주의적 관점, 형벌 중심적 관점
8. 함축 : 처벌이란 죄질의 경중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처벌이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9. 맥락 : 국가를 맡아 다스리는 통치 집단에 속한 또는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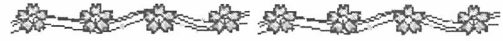


2단계 : 내용 생성하기 (구상하기 전략)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 맵 등을 이용하여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생각들을 종이 위에 마구 쏟아낸다. 물론 이때 논제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면 더욱 좋겠지만 설령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상관 없다. 낙서하듯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생각들을 쏟아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는 다발짓기를 한다. 관련이 있는 내용끼리 묶는 것이다. 주장은 주장대로, 예시는 예시대로, 해결 방안은 해결 방안대로 묶어 본다.





2단계 : 내용 생성하기
(순서도 짜기 전략)

순서도는 같은 항목끼리 다발지어 놓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발지어 놓은 항목 A, B, C, D, E가 있다고 하자. 이때 글의 순서를 A-C-B-D-E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B-A-D-C-E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따져 보고 그 중 가장 적절한 경우의 수를 택해 개조식 문장으로 정리한다.

글쓰기 순서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의 수들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경우의 수 ① : D-B-A-E-F

경우의 수 ② : D-A-B-E-F

경우의 수 ③ : C-A-D-B-E-F

경우의 수 ④ : F-C-A-D-B-E

경우의 수 ⑤ : B-D-C-A-E-F

※ <경우의 수 ①로 결정함>

▶ 결정된 경우의 수에 따라 문단으로 나누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기

문 단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기
D(우화)	
B(원인)	
A(사례)	
E(해결방안)	
F(기타)	



3단계 : 내용 조직하기 (주제문 작성하기 전략)

주제문은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완결된 문장이어야 한다. 논술에서 주제문을 작성할 때는 글의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 주장의 근거까지 요약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주제문은 다음과 같이 세 문장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지금 _____ 이 문제다.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_____ 해야 한다. (주장)

왜냐하면 _____ 해서 _____ 하기 때문이다. (근거)

※ 주제문 작성시 유의할 점

1.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 진술해야 한다.
2. 주제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이치이거나 상식적 의견이어서는 안 된다.
3. 원칙적으로 의문문이나 부정문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4. 비유적인 표현을 삼가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5. 글쓴이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6. 문제에서 제한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주제문을 잘 작성해 놓으면 개요를 작성할 때나 초고를 쓸 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좋다.



3단계 : 내용 조직하기
(개요 작성하기 전략)

결정된 순서도를 바탕으로 화제 개요(핵심 어구나 단어 형태)로 할 것인지 문장 개요(완결된 문장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의 일반적인 장단점을 염두에 두되, 주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때는 문장개요가 바람직하다. 또한 문장 개요는 개요를 짜는 과정에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표현 방법까지 미리 정할 수 있어 다음 단계인 표현하기를 할 때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다.

개요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는 개요 작성의 순서를 서론-본론-결론의 순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의 순서는 다르다. 개요 작성의 순서는 글 구성에 대한 사고의 순서인 반면,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는 글의 서술 순서이다. 따라서 개요 작성은 사고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순서는 먼저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결론과 본론 개요를 작성한 다음 서론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를 구상해야 한다. 그래야 서론에 군더더기 표현이나 장황한 내용을 없앨 수 있다.

3. 서 론

- ① 주의 환기
- ② 논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 제시

2. 본 론

- ①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및 주장 제시
- ②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 ③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및 예상되는 반론 검토

1. 결 론

- ① 주제 환기 및 본문 내용 요약
- ② 전망 제시



4단계 : 표현하기 (초고쓰기 전략)

초고에서는 주장의 허점이 발견되고 논리적 단계가 생략될 수도 있다. 또한 문장이 뒤엉키기도 하고, 단락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용된 단어들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작성한 개요표를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글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은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고쓰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주제문 : ㉠ (지금-문제다) ㉡ (이를 해결하기-) ㉢ (왜냐하면-)

I. 서 론 ✓

중심 문장 ㉠ _____

보조 문장

{ ㉡ _____
㉢ _____
㉣ _____

II. 본 론 ✓

중심 문장 ㉡ _____

보조 문장

{ ㉡ _____
㉢ _____
㉣ _____

중심 문장 ㉡ _____

보조 문장

{ ㉡ _____
㉢ _____
㉣ _____

III.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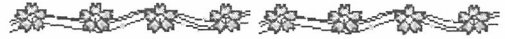
중심 문장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 (㉠+㉡+㉢)

㉡ 전 망 _____

보조 문장

㉢ 제 언 _____

㉣ 기타(자기 주장이 가진 사회적 의미) _____



4단계 : 표현하기
(다듬기 전략)

초고쓰기가 끝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고쓰기 단계에서 곧바로 최종적인 쓰기로 나아가려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초고가 내포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이 논술문이 완성된 다음에도 나타나게 되어 결국 논술문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사태가 초래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초고를 최종적 쓰기에 앞서서 다시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자신의 초고에 나타나는 주요 문제들을 발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초고를 적절히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초고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발견적 질문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글의 시작 부분이 적절한가? 글의 시작 부분이 흥미로운가? 읽는 이로 하여금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가?
- 글의 화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독자가 첫 단락을 읽고 난 뒤에 글쓴이가 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가?
- 글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글의 배열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 중심 생각들이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는가?
- 결론은 앞에서 전개된 내용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나온 것인가? 결론이 엉뚱하지는 않은가?
- 결론은 효과적인가? 결론이 독자에게 만족을 주는가?
- 글쓴이는 독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글을 썼는가? 글쓴이가 이러한 독자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글을 썼는가?



5단계 : 고쳐 쓰기 (평가하기 전략)

평가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표현하기를 마친 후 <자기 점검지>를 통해 채점자(독자)의 입장에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자신이 쓴 글을 살펴보고, <상호 평가지>를 통해 친구들이 쓴 글을 서로 평가한다.

<자기 점검지> 내가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 보자.

평 가 항 목	상	중	하
논제 분석을 철저히 했는가?			
제시문을 지시대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글의 구성이 논리성, 일관성, 객관성을 가지는가?			
글이 상투적이지 않고 독창적이며 신선한가?			
내가 쓴 글의 목적이 분명한가?			
글의 표현이 간결한가?			
글의 분량은 적절한가?			

<상호 평가지> 친구들이 쓴 글을 서로 평가해 보자.

- (1) 서로에게 자신의 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자.
 -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자.
- (2)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 논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자료를 활용하거나 찾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글을 전개해 나가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3) (1)-(2)의 활동을 모두 마친 후, 친구의 글을 읽어 보자.
 - 친구가 어려워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가?
 - 그 문제점을 잘 해결했는가?
 - 오히려 친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 친구의 글에서 특히 잘된 부분은?



5단계 : 고쳐 쓰기
(교정하기 전략)

교정할 때에는 퇴고의 3원칙(부가, 삭제, 재구성)을 엄두에 두고, 글의 내용에서 형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의 순서로 진행한다. 교정하기는 원고지에 옮겨 적기 전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다시 고치지 않고 완성된 논술문을 쓴다는 생각으로 써야 한다.

1.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기

- ☐ 다음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초고를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도록 한다.
 - 글에서 특히 독자에게 이해시키고 싶었던 부분은 어디였는가?
 - 글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2. 단락 수준에서 고쳐 쓰기

- ☐ 다음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초고를 단락 수준에서 고쳐 쓰도록 한다.
 - 단락의 기능이 명확한가?
 - 주장과 논거가 부합하는가?
 -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로 초점화 되어 있는가?

3.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기

- ☐ 다음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초고를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도록 한다.
 - 불분명한 개념어는 없는가?
 - 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은 지켰는가?
 - 문법적인 호응 관계가 맞는가?

전략에 따라 교정한 내용을 원고지에 옮길 때에는 깨끗하게 정자체로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 쓴다. 내용이 훌륭하더라도 글씨가 틀리거나 원고지 사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써야 한다. 평소 한글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을 자세히 숙지하여야 한다.



V. 전략의 적용

【학습지 1 - 1】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문제 발견하기	논제 분석하기	학년 반 성명
▶ 논제 제시 1. 논제 : 다음에 제시한 신문 기사를 읽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해결 방안을 논하라. 2. 조건 : 1) 우리 사회 양극화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 2) 우리 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3) 분량은 1,000자 내외로 할 것. ▶ 논제 분석 논제를 보면 조건이 따로 제시되어 있어 논제에 밑줄을 그어가며 요구사항을 항목화할 필요는 없다. 제시된 논제의 조건을 보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인 양극화 현상의 문제에 대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논제 분석의 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 양극화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나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등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2) 빈부의 대물림 현상은 무엇을 지속시키나? - 제시문 (가)와 (나)를 보면 빈부의 대물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 소득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결국 우리 사회의 계층 불평등 현상을 지속시키게 된다는 내용이다. 3) ‘가난’에 대한 도덕적 책무는 반드시 필요한가? - 산업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계층 불평등일 테니까 선진국도 한때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를 극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선진국의 가난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교육제도의 개선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학습지 1 - 2】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문제 발견하기	제시문 독해하기	학년 반 성명

▶ 제시문

(가) 서울 강북구 미아6동 돌산마을에는 지난 95년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민이 된 50여 세대가 7년째 임시 주거단지에서 살고 있다. 50년대 한강 홍수 이재민, 60년대 이농자, 70년대 무작정 상경자들이다. 돌산마을은 빈곤의 현대사 그 자체다.

박 아무개(73) 할머니는 전남의 한 섬에서 태어났다. 할머니는 섬에서 소작농의 집으로 출가했다. 남편은 30대 무렵 '겨우 밥 먹을 만한' 자신의 농토와 뚝단배를 장만했다. 그러자 간경화에 걸렸다. 한줌의 '부'는 병 앞에 무너졌다. 남편은 10년을 앓다 떠났고, 할머니는 농토와 배를 팔아 치료비를 냈다. 남편이 떠나자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이 마을에 들어왔다. 할머니는 노점상, 취로사업, 봉제공장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으나 치솟는 전세값에 몰려 여지껏 이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아들 김아무개(40)씨는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다. 목발을 짚고 구두공장에서 일해 한 달에 40만~50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지금은 합병증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한다. 김씨의 소망은 검정고시로 2년제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3과목은 합격했으나 7과목이 남아 있다. "컴퓨터와 참고서로 공부하는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김씨는 말했다.

송 아무개(77) 할머니는 전북 부농의 딸이었다. 남편은 일본 유학생이었다. 남편은 한국전쟁 때 좌익활동을 했고, 전쟁이 끝난 뒤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죽었다. "온몸이 매에 흠어져 죽었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남편이 죽자 농토도 흠어졌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못 견뎌 서울로 올라왔다. 60년대 초에 이 마을로 들어와 40여 년을 살았다. 공사판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다. 아들 문 아무개(48)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하다 3년 전 공사장에서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돈버는 사람은 할머니의 손녀(24)뿐이다. 딸은 미용기술을 배워 미장원에 취직했다. 이제 막 돈벌이를 시작한 딸에게 세습된 가난의 무게는 무겁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여생을 부양해야 하는 일이 딸 혼자 책임져야 할 몫이라면, 딸이 가난을 극복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앓아 누운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6백만 원 카드빚의 중압을 안고 딸은 매일 산동네를 내려와 미장원으로 출근한다.

(나) 90년대에 들어서 서울 강남 청담동에 새로운 부촌이 건설됐다. 청담동은 세련된 고급소비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부는 마음 놓고 드러내도 좋은 가치로 바뀌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양식과 패션이 부의 새로운 풍경을 주도해 나갔다.

시가 20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과 빌라들이 들어선 주택가 앞 거리에는 세계 최고급 명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고급 레스토랑 변기에는 물위에 빨간 단풍잎이 떠있다. 레스토랑이나 카페의 식탁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차린다. 요리사가 아니라 요리를 식탁 위에 펼쳐놓는 전문가다. 식탁은 조형예술로 변한다.

단 1종의 명품만으로도 청담동에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 수 있다. '프랭크 물러'는 최고급 시계 브랜드다. 시계 1개가 2천만~1억 원이다.

지난달 중순, 청담동에서는 '프랭크 물러' 판촉 파티가 열렸다.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파티에는 3백여 명의 미녀와 신사들이 모였다. 돈은 받지 않는다. 초청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프라이빗 파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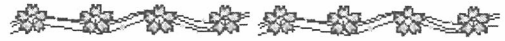
파티가 자주 열리면서 인맥이 결성되고 정보가 유통된다. 자녀들끼리 고급 명품을 선물로 주고받아 문화적 감성의 동질성을 유지해 나간다. 부는 풍속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습된다. 재산과 문화가 함께 세습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전이 막바지 열기를 뽐던 와중에도 청담동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붐볐다. 청담동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디자이너 김 아무개(42) 씨는 "청담동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정치이야기를 거의 않는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미 확보한 부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한겨레신문, 2003년 1월 1일.

※ 위 제시문은 신문 보도 기사라서 비교적 내용이 쉽다. 우선 기사 속에서 논제의 성격에 부합되는 내용을 찾는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구조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따져 본다.

1. 위 두 편의 기사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과 빈부의 대물림 현상을 지적한 글)
2. 제시문 (가)의 내용을 ‘이촌향도’의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산업화에 따른 이촌 현상이 또 다른 도시 노동자를 양산하여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됨)
3. 제시문 (가)에 묘사된 가족이,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생각해 보자.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교육(공부)이 아닌가한다, 공교육의 활성화와 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 또한 의료 시설의 확충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확대 실시해야 한다.)
4. 제시문 (나)의 “이미 확보된 부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부의 기득권을 지닌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잔치(파티)나 클럽을 조직하여 자기들끼리 혼인하고, 남들보다 더욱 많이 교육시키고, 권력에 줄이 닿아 있어 계속적으로 부를 세습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5. 이 신문 기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 공감하는지 말해 보자.
(이 제시문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는 내용이고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한다, 공감한다.)



【학습지 2】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내용 생성하기	구상하기 및 순서도 짜기	학년 반 성명

※ 마인드 맵을 이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보자.

(예)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염상섭의 <삼대>, 김정한의 <사하촌>, <레미제라블>, <성북동 비둘기>, <강>, <저문 강에 삼을 씻고>.....[A]

(원인) 빈부의 대물림 현상
부의 분배 문제
선성장 후분배 [B]

[C] (속담) 개천에서 용난다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쓴다

[D]
(우화) 말과 당나귀 이야기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해결방안)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충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갈 수 있게 교육의 평등
집 값 안정 [E]
빈부 격차 줄여야
부의 분배의 공정성, 최저 생계비 지원 확대

(기타)

20대 80법칙 (부 20: 빈80)

[F] 한 달 최저 생계비 4인 기준으로 105만원
정태춘의 노래 <우리들의 죽음>

노벨의 말 한 마디 "우리는 '가난하지만 꿈꾸는 사람' 에게 손길을 뻗혀 주고 싶다."

▶ 순서도 짜기

- ① D-B-A-E-F
- ② D-A-B-E-F
- ③ C-A-D-B-E-F
- ④ F-C-A-D-B-E

※ ①번으로 결정



【학습지 3】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내용 조직하기	주제문과 개요 작성하기	학년 반 성명
▶ 주제문 : ①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다, ②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확대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요구된다, ③ 왜냐하면 바람직한 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 개 요 I. 서 론 ① <u>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다,</u> ㉠ 말과 당나귀에 관한 우화를 통해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오늘날 현대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빈부의 대물림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빈부의 대물림 현상과 자원의 부족, 그에 따른 분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II. 본 론 ② <u>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확대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요구 된다,</u> ㉠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책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③ <u>왜냐하면 바람직한 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야 하기 때문이다,</u> ㉠ 국가가 나서서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충이나 최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서로 신분을 넘어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III. 결 론 ① 요약 : 사회 제도의 개혁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 전망 : 노벨의 말 "우리는 '가난하지만 꿈꾸는 사람에게 도움이 손길을 뻗어 주고 싶다, ㉡ 기타(사회적 의미) : 남과 더불어 사는 마음, 배려, 희생, 봉사정신이 절실히 필요함			



【학습지 4 - 1】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표현하기	초고 쓰기	학년 반 성명
※ 초고쓰기는 독자를 고려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글로 옮길 수 있는가’ 를 확인하며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도록 한다. ▶ 주제문 :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확대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여야 하기 때문이다, ▶ 초고쓰기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무더운 여름날, 상인이 말과 당나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먼 길을 떠났다, 당나귀는 말보다 힘이 약하여 무거운 짐을 들고 가기 힘들었다, 그래서 당나귀가 자기 짐을 조금만 덜어가 달라고 말에게 부탁했지만 말은 거절했다, 그러다가 당나귀는 얼마 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졌다, 당나귀의 모든 짐은 말에게 옮겨졌고, 당나귀의 몸도 말 등에 싣고 갔다, 그래서야 말은 도와주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이 우화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균형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준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원의 부족과 그것에 따른 분배의 문제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영수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반면, 그들의 공장은 날로 번창해 간다, 결국 최소한 가치가 노력에 따르지 않고 불평등하게 분배되면 권력과 자본에 의해 빈부 격차가 커지게 된다, 이런 빈부 격차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되어서 결국 계층이 나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뉜 계층의 불평등이 지나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사회 제도의 개혁이다, 국가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의 확충과 최저 생계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얼마 전 실시된 “최저 생계비로 한 달 나기” 프로그램에서는 최저 생계비 이외에도 각종 세금 혜택 등이 빈곤층이 실제 생활을 꾸려 가는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어설픈 사회 제도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 관심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의 출세주의와 소득에 대한 집착이 만연한 이 때에 의식적 개혁도 필요하다, 계층이 분리된 사회구조가 너무 경쟁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 고위층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도 없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고위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환의 <사하촌>에 나오는 농민들처럼 서로가 이해하고 신분을 넘어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면 곧 계층 간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지 4 - 2】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표현하기	다듬기	학년 반 성명
※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초고를 고쳐 쓴다. · 글의 시작 부분이 적절한가? · 글의 시작 부분이 흥미로운가? · 읽는 이로 하여금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가? · 글의 화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 독자가 첫 단락을 읽고 난 뒤에 글쓰기가 쓰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는가? · 글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 글의 배열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가? · 중심 생각들이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는가? · 결론은 앞에서 전개된 내용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나온 것인가? 결론이 엉뚱하지는 않은가? · 결론은 효과적인가? · 결론이 독자에게 만족을 주는가? · 글이 짜임새가 있는가? · 글쓰이는 독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글을 썼는가? · 글쓰이가 이러한 독자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글을 썼는가? 주제문 : 사회제도의 개혁과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자,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무더운 여름날, 상인이 말과 당나귀 등에 짐을 잔뜩 싣고 먼 길을 떠났다, 당나귀는 말보다 힘이 약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 가기 힘들 (150) 었다, 그래서 당나귀는 말에게 자기 짐을 조금만 덜어가 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은 거절 했다, 그러다가 당나귀는 얼마 가지 못하고 지쳐 쓰러졌다, 당나귀의 모든 짐은 말에 게 옮겨졌고 당나귀의 몸도 말 등에 싣고 갔다, 그때서야 말은 당나귀를 도와주지 않 (300) 았던 것을 후회했다, 이 우화는 말을 부유층에, 당나귀를 가난한 자에 비유해 본다면 빈부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학습지 5 - 1】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고쳐 쓰기	평가하기	학년 반 성명

〈자기 점검지〉 내가 쓴 글을 스스로 평가해 보자.

평 가 항 목	상	중	하
논제 분석을 철저히 했는가?	√		
나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는가?	√		
내가 제기한 근거가 믿을 만하고 타당한가?	√		
나의 주장과 근거가 부합하는가?	√		
내가 쓴 글의 목적이 분명한가?	√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가?		√	
띄어쓰기와 맞춤법 규정을 지켰는가?	√		
우리 사회의 계층 문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		

〈상호 평가지〉 친구들이 쓴 글을 서로 평가해 보자.

- (1) 서로에게 자신의 글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하자.
 -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자.
- (2) 글을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의견을 나누어 보자.
 - 논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란 용어가 다소 생소했다,)
 - 자료를 활용하거나 찾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논제가 주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라 자료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글을 전개해 나가는 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단계별로 진행되어 지루하지 않았다,)
- (3) (1)–(2)의 활동을 모두 마친 후, 친구의 글을 읽어 보자.
 - 친구가 어려워했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가?
(초고쓰기가 어려웠다,)
 - 그 문제점을 잘 해결했는가?
(전략을 활용하여 해결했다,)
 - 오히려 친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오류가 있다,)
 - 친구의 글에서 특히 잘된 부분은? (서론의 우화 제시가 아주 마음에 든다,)
 - 모르고 있거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글을 썼는가?
 - 글쓰기가 이러한 독자의 상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글을 썼는가?



【학습지 5 - 2】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고쳐 쓰기			교정하기			학년 반 성명		

주제문 : 사회제도의 개혁과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자.

	엣		우	화		중	에		이	런		이	야	기
가		있	다	,	무	더	운		여	름	날	,	상	인
이		말	과		당	나	귀		등	에		무	거	운
집	을		잔	뜯		실	고		먼		길	을		때
났	다	,	당	나	귀	는		말	보	다		힘	이	
약	하	여		무	거	운		집	을		실	고		가
기		힘	들	었	다	,	그	래	서		당	나	귀	는
말	에	게		자	기		집	을		조	금	만		덜
어	가		달	라	고		부	탁	했	지	만		말	은
거	절	했	다	,	그	러	다	가		당	나	귀	는	
얼	마		가	지		못	하	고		지	쳐		쓰	러
졌	다	,	당	나	귀	의		모	든		집	은		말
에	게		웁	겨	졌	고		나	중	에	는		당	나
귀	의		몸	도		말		등	에		실	고		갔
다	,	그	때	서	야		말	은		당	나	귀	를	
도	와	주	지		않	았	던		것	을		후	회	했
다	,	이		우	화	는		말	을		부	유	층	에,
당	나	귀	를		가	난	한		자	에		비	유	해
본	다	면		빈	부	의		균	형	이		얼	마	나
중	요	한	지	를		단	적	으	로		말	해	주	는
이	야	기	라		할		수		있	다	,			
	그	런	데		우	리		사	회	도		이	러	한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고쳐 쓰기				교정하기				학년 반 성명			
우	화		속	의		이	야	기	와		거	의		다	
를		바		없	다	,	계	층	의		불	평	등		
현	상	은		날	이		같	수	록		심	각	해	져	
20	:	80		법	칙	을		보	여	주	고		있	다,	
	이	런		계	층		불	평	등		현	상	이		
일	어	나	는		가	장		큰		원	인	은		바	
로		자	원	의		부	족	과		그	것	에		따	
른		본	배	의		문	제	이	다	,	조	세	희	의	
<난	쟁	이	가		쏘	아	울	린		작	은		공	>	
에	서	는		난	쟁	이	의		아	들	인		영	호	
와		영	수	가		공	장	에	서		열	심	히		
일	을		하	며		살	아	가	는	데	,	모	순	되	
게	도		영	호	와		영	수	가		아	무	리		
열	심	히		일	을		해	도		생	활	은		점	
점		더		가	난	해	지	는		반	면	,	그	들	
이		속	한		공	장	은		날	로		변	창	해	
간	다	,	결	국		최	소	한	의		가	치	가		
노	력	에		따	르	지		않	고		불	평	등	하	
게		본	배	되	면		권	력	과		자	본	에		
의	해		빈	부		격	차	가		커	지	게		된	
다	,	이	런		빈	부		격	차	는		계	속		
대	물	림	되	면	서		사	회		계	층	이		나	
뉘	게		되	는		것	이	다	,						
	이	령	게		나	닌		계	층	의		불	평	등	
이		지	나	치	면		사	회	적		같	등	이		
생	기	게		된	다	,	이		같	등	을		해	결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고쳐 쓰기				교정하기				학년 반 성명			
하	기		위	해		가	장		펼	요	한		일	은	
사	회	제	도	의		개	혁	이	다	,	국	가	는		
빈	곤	층	을		위	한		복	지	제	도	의		확	
충	과		최	저		생	계	비		지	원	을		확	
대	할		필	요	성	이		있	다	,	상	위		20	
%	만	을		위	한		80	%	의		빈	곤	층	을	
도	외	시	한		성	장	은		사	태	를		더	욱	
악	화	시	킬		따	름	이	다	,	성	장	과		분	
배	가		조	화	를		이	루	려	면		누	구	를	
위	한		성	장	과		분	배	인	지	를		따	저	
보	아	야		한	다	,	즉		이	제	는		양	적	
성	장	이		아	니	라		질	적		성	장	을		
이	루	어		나	가	야		한	다	,					
	또	한		공	교	육	의		내	실	화	를		통	
해		가	난	한		사	람	도		열	심	히		공	
부	하	면		중	은		대	학	에		진	학	할		
수		있	게		하	여		"	거	복	이	와		토	
끼	"	의		우	화	에	서	처	럼		열	심	히		
노	력	하	는		거	복	이	가		토	끼	를		앞	
지	를		수		있	도	록		교	육	제	도	의		
보	완	도		절	실	히		요	구	된	다	,			
	사	회	적		개	혁	과		함	께		생	각	해	
보	아	야		할		것	이		의	식	적		개	혁	
이	다	,	이	는		우	리		사	회	가		출	세	
주	의	와		소	득	에		대	한		집	착	,	그	
리	고		경	쟁	만	을		지	향	하	고		있	기	



주 제				단계별 전략				활 동 내 용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고쳐 쓰기				교정하기				학년 반 성명			
때	문	이	다	,	물	론		사	회		지	도	층	의	
도	덕	적		책	무	,	즉		노	불	리	스		오	
블	리	제		정	신	도		없	어	서	는		안		
된	다	,	사	회	적		지	위	에		결	맞	는		
책	임	감	과		의	무	감	을		가	지	고		있	
어	야		진	정	한		사	회	의		지	도	층	으	
로	서	의		역	할	을		제	대	로		수	행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김	정	한	의		<	사	하	촌	>	에		나	오	
는		능	민	들	처	럼		부	조	리	한		현	실	
을		타	파	하	려	는		노	력	과		함	께		
다	이	녀	마	이	트	를		발	명	해		부	자	가	
된		노	벨	의		다	음	과		같	은		말	은	
우	리		사	회	의		계	층		불	평	등		현	
상	을		어	떻	게		해	결	해	야		하	는	지	
를		조	심	스	럽	게		알	려	주	고		있	다,	
	"	우	리	는	'	가	난	하	지	만		꿈	꾸	는	
사	람	'	에	게		손	길	을		뿐	혀		주	어	
야		한	다	,	"										

VI. 제 언

1. 논술을 가르치는 교사 스스로 논제와 제시문을 읽고 직접 자신이 답안을 작성해 보아야 한다.
2. 학생들이 내용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논술문을 쓰려면 분량을 약 3,000자 정도로 늘려야 한다. 1,200자 내지 1,500자 분량으로는 매우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언어유희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3.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므로 정보 활용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긍정적인 자료, 부정적인 자료, 관련이 많은 자료, 관련이 적은 자료, 관련이 거의 없는 자료, 그림 자료, 통계표 등-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4. 천편일률적인 결과 중심의 논술지도가 아닌 과정 중심의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이 논술문을 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그때그때 해결해 주는 밑도 있는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창의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논술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정착되려면 각 교과별로 단원의 마무리 시간에 단원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주제를 정해 토론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글로 써 보게 하여 수행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를 다른 교과에 전이시켜 하나의 교과적 지식을 다른 교과에 응용하여 지식의 내적 발효 과정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논술 침식지도의 실제

인천남동고등학교

교사 최 남 현

I. 논술 채점은 공정한가?

논술 답안의 내용이나 논리성과는 상관없이 글씨를 예쁘게 잘 쓰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반대로 글씨를 못 쓰면 불이익을 당하여 나쁜 점수를 받게 될 것인가. 물론 그럴지도 모른다. 몇 년 전, 한 대학의 교수가 논술 고사 채점을 감(感)으로 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그 고백 이후 논술 답안 채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시비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각종 논술 대회나 대입 논술 시험의 채점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채점자의 기분이나 개인적 선호도, 채점의 순서와 같은 요인들에 의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논술고사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는 서술형 평가의 채점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논술 채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다.

논술 채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일까. 이점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의 격론을 벌이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입 논술 채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논술 시험을 주관하는 대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고 있다. 대입 논술 문항의 채점 결과가 단 하나의 의구심도 없이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논술고사가 도입된 이래로 각 대학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논술 출제와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보는 목적이 자기 대학에서 공부할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대학의 자율성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논술 시행 초기부터 이제까지 있어 왔던 결함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스템으로 극복해 오고 있다. 채점 가용 교수 리스트를 작성하고 채점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교수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외하기도 한다. 채점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오후 5시 이후에는 채점을 하지 않으며 채점장 바로 옆에 휴게실을 배치해 채점하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바로 쉬게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논술 채점은 3명의 교수가 한 팀이 되어 하며, 점수 편차가 10점 이상 나면 다시 채점한다고 한다. 하루 채점하는 답안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며 인문대학에 응시한 학생의 답안은 인문대학 논술 채점 교수들만 채점하게 한다. 다른 단위에서 채점하면 원래 채점자 팀에게 채점 받은 학생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에서는 논술 답안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이 끝나면 출제 교수들이 실제 학생들의 답안을 보고 수준과 눈높이를 측정한 후에 모범 답안과 출제 의도, 채점 기준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어서 출제 교수들이 90점 수준에서 30~40점 수준의 다양한 답안지 20개 정도를 뽑아 가채점한 뒤에 채점 교수들에게 출제 의도와 문제 취지를 교육한다. 이후 채점 교수들의 점수와 출제 교수들의 점수를 비교해 본다. 편차가 크면 출제위원장이 점수에 따라 채점 기준을 다시 설명하고 채점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아야 할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객관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 이유는 따로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학교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채점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논술 시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일 것이다.

II. 대입 논술전형에 대한 이해

1. 2010학년도 논술전형의 출제 경향

가. 통합논술의 기본 골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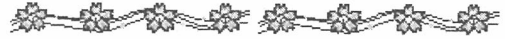
- 2010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는 전반적으로 통합교과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2008학년도 논술고사 및 2009학년도 모의 논술고사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

나. 문항수는 1~5문항으로 약간 줄거나 작년과 동일

(연·고대, 한양대 - 3문항, 동국대 - 5문항, 이대 - 5문항 등)

다. 논리적 창의적 비판적 사고능력, 특히 논증력을 묻는 문항의 증가

- 제시문 분량이 줄고 내용이 쉬워지는 대신 논제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단편적인 이해이나 분석이 아니라 제시문 사이의 연관 관계와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형태가 많았다.



라.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증가

- 본고사 유형의 수리 논술이 아니라 기본 개념을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로 출제 되었다.

마. 주제의 세분화와 다양화

- 다양성의 의미, 본성론, 정치 사상, 소유에 대한 가치관, 자유와 평등, 복제, 예술, 과학과 윤리 등으로 주제가 세분화되고, 영역 간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바. 본론 중심의 답안 요구

- 논제당 답안 분량이 300~1000자 정도로 짧게 주어짐에 따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논제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서술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사. 제시문을 활용하는 문제의 증가

- 주어진 여러 제시문 중 하나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다른 제시문을 평가하거나, 두 제시문을 비교하고 특정 사례에 대해 둘 이상의 제시문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등 주어진 제시문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특정 주제를 암기한 답안은 적용할 수 없는 유형이다.

2. 주요대학 수시 논술문제 보기

가. 서울대학교

인간이 의미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며, 그 성숙의 정도와 단계는 개인마다 다르다. 다음 제시문들은 각 작품의 화자이자 주인공이 큰 세계를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 혹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논하시오.

나. 연세대학교

-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는 공공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분석하시오. (800자 내외)
- 〈문제 2〉 아래에 소개된 공공성의 속성이 제시문 (가), (나) 각각에 제시된 공공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800자 내외)

공공성이란 공중에 관련된 모든 것을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문제 3〉 제시문 (라)의 마을은 삼림 훼손을 막아 마을 전체의 이익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절한 입장을 제시문 (가), (나), (다) 가운데서 선택하여 그 선택의 근거를 설명하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시오. 그 방안들은 제시문 (라)에 나온 세 가지 규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다. 고려대학교

- I. (1)을 500자 내외로 요약하시오. (20점)
 II. ‘운의 사회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2)와 (3)을 비교하고, 이를 참고하여 (4)의 주장을 논평하시오. 그리고 ‘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50점)
 III. (5)에서 정부가 취할 분배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세 제안이 있을 수 있다.

제안 A : 개인이 사용할 배경자원과 복지자원의 합($x+y$)이 사람들 사이에 균등하게 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B : 노력수준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 배경자원의 차이로 인한 후생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노력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후생격차가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제안 C : 모든 국민의 후생수준의 총합이 극대화되도록 복지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

각 제안 하에서 집단별로 1인당 배분될 복지자원의 크기를 구하고, (5)에 나타난 공평성의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세 제안을 비교하시오. (30점)

라. 인하대학교

- [문제1] 제시문 (라)에서 나타난 주장과 연관된 내용을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찾아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시오. (600±60자)
 [문제2]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자료 1]~[자료 5]에서 찾아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600±60자)
 [문제3]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원주민 언어 문제에 대해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디언 원주민 언어들 중 80%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언어로 추정된다. 현재의 캐나다 지역에서 최소한 60종의 원주민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단지 4%만이 진정한 생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언어들만이 언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사용자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토가 된 지역에서 쓰이던 원주민 언어 중 불과 다섯 개만이 1만 명에서 2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으며, 두 가지 언어만이 4만 명에서 5만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가 10만 명이 넘는 토착어는 나바호어뿐이다. 도회지에 나가 현대 문명의 세례를 받고 싶은 젊은이들은 고유의 언어 대신 영어나 불어를 더 배우고 싶어 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원주민 언어는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 건>

1. 원주민 언어에 대한 '인위적인 보호'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의 견해만 택할 것.
2. (가)~(바)에서 논거를 찾아 뒷받침할 것.
3. 서론과 결론을 쓰지 말고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III. 첨삭지도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 사고력을 확장하는 첨삭 지도 - 논술의 생명은 사고력

논술 지도는 논리적 · 창의적 ·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통하여 주어진 논제에 맞는 체계를 갖추어 자기주장을 펼치는 글을 쓰는 데 직접 도움을 주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단순한 생각의 덩어리를 논리적 · 창의적 · 비판적으로 구체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실제 토론 수업을 통하여 사고의 과정과 논증, 그에 따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종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대안을 찾도록 하는 첨삭 지도 - 논제의 핵심은 자신만의 대안 찾기

좋은 논술문은 결국 토론과 첨삭의 논술지도에 투입한 시간과 횟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구체화하고 자신의 글을 반복해서 읽고 수정할 때 좋은 논술문이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토론과 첨삭 지도의 내용이다. 토론 수업을 통한 논술 지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점을 확인하거나 비판만을 제기하는 데 있지 않다. 평가와 대안을 통해서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을 논술문으로 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토론을 활용한 논술 지도는 학생들의 생각을 수정하여 암기하도록 하거나 좋은 대안을 암기하도록 하는 과정이 결코 아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논리적 문제점을 찾아 자신의 대안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다.

□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첨삭지도 - 문제의 확인과 해결 과정 찾기

논술 지도는 학생들의 논술 쓰기 수준에 따라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교정 · 보완해 줌으로써 학생 자신이 어떤 능력이 부족한지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하고 극복하게 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능력을 형성하게 하는 길잡이 역할이 바로 논술 지도의 핵심이다. 특히 논술 첨삭 지도는 논술문에 나타난 표현과 사고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생 자신의 장 · 단점,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술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 동기유발과 지도 방법의 개선

논술 수업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학생들에게 무작정 글쓰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삶에 대한 깨달음이 들어있지 않은 성의 없는 글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을 논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와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 생각의 중요성

논술의 핵심은 주어진 논제에 대한 학생들의 논리적·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내용 표현이다. 따라서 첨삭지도는 학생들의 마음과 사고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생들의 글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펜의 흔적(일명 피바다)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을 논술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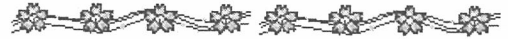
□ 현실 인식의 필요성

논술 지도는 열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논술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학생들의 글을 읽고 그들과 의사소통하고 때로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논술에서 설득과 의사소통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Ⅳ. 논술 평가의 기준과 목표

각 대학에서는 논술 채점의 기준안을 마련해 놓고 채점을 실시한다. 논술 채점의 기준안은 자기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통해 평가하려는 요소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가 요소는 크게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논술 평가 요소 범주				
사고 능력(형식적 측면+내용적 측면)			표현 능력	
이해·분석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글 구성 능력	어법과 표현



대학에 따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그 기준을 정해 놓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채점 기준안을 작성하기에 앞서 논술 평가 요소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숙지해야 한다. 어떤 논술 답안이 훌륭한 논술 답안인지를 결정하는 평가 요소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논술 답안 채점에서 좋은 논술 답안의 평가 요소로 필수적인 것은 표1의 내용과 같다.

논술은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논술 능력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생각을 생성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사고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문자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사고 능력이 논술을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표현 능력은 머릿속 생각이 원고지 위에서 글로 구체화되는 활동이다. 논술 채점에서는 이 두 가지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사고 능력을 다시 나누어 보면,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나눌 수 있다. 논술에서는 논리적 사고력이 가장 중시되는데, 이는 대상(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비판적 사고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물론 논술에서 논리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논술 능력이 곧 논리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발상의 독창성과 해석의 참신성을 바탕으로 대안을 내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힘이 바로 창의적 사고력이다. 특히, 논지의 방향을 잡고 내용을 형성하는 데는 창의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논술 채점 기준도 이러한 사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또한, 표현 능력은 크게 글 구성 능력과 어법, 표현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글 구성 능력은 사고의 내용을 논술의 상황에 맞게 표현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글 구성 능력 속에는 자신의 주장과 표현을 자기 스스로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종합하는 능력이 들어 있다. 어법과 표현 능력은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능력이다. 바람직한 논술은 어법 능력이 갖추어질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술 채점 기준도 이러한 표현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제 명확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들 논술 평가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논리적 사고력과 채점 기준

논리적 사고력이란, 대상(현상)을 ‘일정한 질서와 준거’를 갖추어서 이치에 맞게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어떤 현상을 가장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주장하기 위해 ‘체계’를 세워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논리적 사고력은 논리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길러지지 않는다. 논술에서의 논리적 사고력은 분석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의 영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논거가 구슬이라면, 이를 꿰어서 글의 열개를 잡는 작업은 논술의 조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때는 논거와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여 체계와 통일성을 갖출지를 고려해야 한다.

<표> 논리적 사고력과 채점 기준

구 분	내 용
평가 요소	○ 주장과 논증 -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담는 형식과 틀 ○ 논점을 맞추는 능력 - 문제파악, 전략, 구성, 논증 ○ 연관 관계 구성 - 수집, 분석, 비교, 대조, 구성, 관계설정 ○ 논증과 추론 - 논리의 전개, 비판적 사고, 귀납, 연역 논증
채점 기준	◆ 근거를 설정하는 능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가. · 자료를 이해하고 추리하여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가.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논술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있는가. · 논의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가. · 논의 전개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은 없는가. · 전체 논의 전개에서 논지의 일관성이 유지되는가. · 논의 내용을 체계적 또는 구조적으로 조직하는가. · 자료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관점을 논지 전개에 활용하는가.

2. 창의적 사고력과 채점 기준

창의적 사고는 어떤 범위나 내적 규제 등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려는 사고이다. 어떠한 영역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을 펼친다는 점에서 ‘장 독립적 사고’라고도 하며, 현상을 보되 그로부터 자유롭게 연상·전이되는 사고라 하여 확산적 사고라고도 한다. 확산적 사고는 어떤 문제를 자각한 다음, 여러 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그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여러 범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



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생각해 본 후에, 이를 정교화 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해 내는 사고 과정이다. 논술에서 창의적 사고력은 사고 내용이나 논지 전개 방식을 참신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 어디서나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상투적 논술 답안이라면 창의적 사고력이 반영된 논술이라 할 수 없다. 자신만의 발상과 논리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이 모자란 논술은 진부하고 평범하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논술에서 창의적 사고가 잘 나타나려면, 자기 논의를 자신의 눈으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 대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사고 습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자료나 주장 속에서 남들이 잘 찾아내지 못하는 이면적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도 창의적 사고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부하고 상투적인 논의로 흐르지 않고, 독창적으로 어떤 주장을 드러내는 참신한 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표> 창의적 사고력과 채점 기준

구 분	내 용
평가 요소	○ 독창성 - 새롭고 더 나은 아이디어(독자적인 생각) ○ 유연성 - 열린 마음의 사고(변화된 사태에 대한 적응성) ○ 민감성 -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의 정도
채점 기준	◆ 관점과 논리를 독창적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상투적 견해들을 알고, 그것을 비판하는가. · 내용에 알맞은 지식을 선별하는 독창적인 기준이 있는가. · 논제에 맞는 논지 전개 방식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가. ◆ 다각적인 논의 전개 능력이 있는가. · 논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는가. · 고정적인 발상과 관점을 논술 상황에 맞추어 전환할 수 있는가. · 여러 개념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관련짓고 종합할 수 있는가. ◆ 논의를 심층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자료나 주장 속에 숨어 있는 전제들을 잘 찾아내는가. ·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을 함께 제시하는가. · 어떤 논의 주제를 다른 주제와 유연하게 관계 짓는가.

3. 표현 능력과 채점 기준

글 구성 능력은 사고한 내용을 한 편의 논술로 써 내는 능력이다. 구성 능력에 대한 주된 평가 요소는 첫째, 주장과 근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머릿속으로만 구상했던 논술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글로 엮어 내는 능력이다. 글 구성 능력은 쓰는 과정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논술을 언어 표현 면에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조정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언어 표현을 조정함으로써 글의 내용과 형식은 더욱 정교해지는 것이다.

어법 능력은 우리말의 규범, 특히 맞춤법에 맞도록 글을 쓰는 능력으로, 문장의 정확성을 보장해 주는 능력이다. 적어도 표현의 외적 완성도로 보자면, 바람직한 논술은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한다.

<표> 표현 능력과 채점 기준

구 분	내 용
채점 기준	◆ 논술 상황에 맞는 표현 전략을 구사하는가. · 의도한 발상을 표현 전략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의도한 논증을 표현 전략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가. · 논제와 논술 상황에 맞게 표현 전략을 구사하는가. ◆ 표현된 글로서 내용의 통일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추었는가. · 불필요한 내용 표현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는가. · 논지 전개에 맞게 전체의 형식을 조정하여 다듬었는가. · 문단을 효과적으로 조정·배치했는가. ◆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가. ·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 문장을 바르게 만들어 내는가. · 문단을 바르게 구성하고 있는가. ◆ 표현을 실제 논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가. · 문장의 길이나 문단의 크기가 적절한가. · 단어나 문장, 문단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 · 실제 논술의 상황에 맞게 문체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가.



V. 첨삭지도의 단계와 방법

1. 첨삭 지도의 단계와 내용

단 계	지 도 내 용
논제 파악과 주장의 방향 첨삭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 등을 파악하는 단계 - 논제를 올바르게 파악했는가? - 제시문을 바르게 파악했는가? - 주장이 논제와 맞는가? 주장의 근거가 적절한가?
개요와 서론·본론·결론 첨삭 (논리적·창의적·비판적사고)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 구조와 내용의 창의성 - 문단을 제대로 나눴는가? - 문단은 논리적으로 한 단계씩 전개하였는가? - 문단의 구조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졌는가? - 각 문단은 글의 통일성, 일관성, 논리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는가?
표현에 대한 첨삭 (문장과 표현의 적절성)	- 주제문을 부정적 표현으로 제시한 것은 없는가? - 문장은 명백하게 진술되었으며, 문법적으로 정확한가? -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호응은 적절한가? - 논지와 논거를 문법적으로 적절히 연결하였는가? - 주장의 강도에 따른 표현은 적절한가?
단어에 대한 첨삭	단어 수준의 고쳐 쓰기 -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는가? 개념을 잘못 사용하면 글의 맥락이 바뀔 수 있다. - 단어 사용이 명료하고 정확한가? - 필요 이상으로 지시어, 접속어를 남발하지 않았는가? - 맞춤법, 표준어, 문장부호,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를 규정에 맞게 하였는가? - 외국어, 난해어, 무의미어, 애매어, 장식적 표현, 동의 중복적 표현, 피동 표현의 남용은 없는가?



2. 첨삭 지도의 방법

가. 첨삭 지도의 방법

- ☐ 문법 위주의 첨삭에서 논리 중심의 첨삭으로
- ☐ 형식 논리에서 실질 논리, 삶의 논리로
- ☐ 표현의 정확성에서 표현의 효과 전략으로

첨삭지도는 학생과 교사가 글을 통해 만나는 것이다. 그 만남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각각의 첨삭지도 방법을 학교 사정에 맞게 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생의 글쓰기 능력에 따라 첨삭지도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대면 첨삭

학생의 글을 앞에 놓고 교사와 학생이 대화를 통해 그 글의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글의 의도와 방향 등의 파악에 매우 효과적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그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학생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이거나, 교사에게는 준비 시간과 지도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 부담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서면 첨삭

학생이 제출한 글에 첨삭 지도할 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장 일반화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에 관리하기 편하고 어느 정도 표준화된 첨삭지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그러나 첨삭하는 교사는 첨삭 내용을 뽁뽁하게 적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학생들은 뽁뽁하게 채워진 첨삭 내용을 보고 중요한 지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교사가 지적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학생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3) 공동 첨삭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 학생들이 서로 글을 바꿔서 첨삭
-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한 학생의 글을 공동 첨삭
- 한 학생의 글을 학급 전체 학생들이 첨삭 : 이 경우 어떤 학생의 글을 선



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논의할 내용이 많은 학생의 글을 선택하되 지나치게 못쓴 학생의 글은 삼가는 것이 좋다. 학생 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지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 첨삭 지도의 기본과 유의 사항

- 1) 첨삭의 우선 순위와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 정한다.
논술 평가 기준에 따라서 첨삭이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첨삭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첨삭을 시작한다.
- 2) 첨삭 지도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작성한 후 글 전체에 대한 첨삭 지도를 한다.
- 3) 학생들의 글을 다시 완전하게 써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첨삭을 하지 않는다. 질문들 던지고 글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제한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4) 코멘트는 명확하게 하고 격려와 칭찬을 반드시 한다.
- 5)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글의 경우에 코멘트를 달지 말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의 기본적인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전달한다.
- 6) 글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첨삭 지도의 유의 사항

- 1) 표현상의 지적보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의 글이 얼마나 논제에 적합한지, 서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있는지, 본론과 결론은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주장은 뚜렷한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는 타당한지, 들고 있는 예와 근거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지 등등.
- 2) 학생 원고에 대해 지적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와 대안을 제시할 것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라는 식의 지도보다는 “이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좋다.
- 3) 부분적인 지적과 더불어 총평을 해준다.
- 4) 첨삭 후 지적 사항에 따라 학생이 글을 다시 쓰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
- 5) 학생의 글에서 부정적인(잘못된) 측면만을 지적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지적해 준다.
- 6) 첨삭 지도란에 글을 쓸 때는 띄어쓰기, 오자, 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 7) 너무 많은 것을 고치려하지 말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논제나 개념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Ⅵ. 첨삭지도 수업의 실제

1. 논제 파악과 주장의 방향에 대한 첨삭

가. 논제 파악

모든 논술 문제에는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담겨 있다. 출제자가 어떤 답안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글을 써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논술의 출제 의도는 논제에 나와 있다. 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은 논술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따라서 논술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 문제 분석이다. 문제에는 논제 및 제시문 독해의 방향, 출제 의도와 채점 항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제시문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먼저,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읽어야 할지를 지도해야 한다.

<예 시>

다음 제시문은 웃음의 유발과 관계된 것이다. 각각의 경우 웃게 되는 이유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적절한 예를 통해 그와 같은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논술하시오.(연세대 논술고사 인문계 문제)

➡ ①은 제시문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즉, 제시문들의 중심 내용이 모두 ‘웃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제시문을 읽을 때 ‘웃음’에 유의해서 읽어야 한다. ②는 수험생이 써야 할 논술의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것으로, 흔히 말하는 논제다. 그런데 ②는 다시 3개 항목으로 나뉜다.

㉠ 제시문 각각의 웃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제시문 각각의 웃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 적절한 예를 들어 웃음의 사회적 기능을 말하라.

㉠은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이고, ㉡은 ㉠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 ㉢은 수험생의 개인적인 생각을 펼쳐야 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③은 글의 분량을 기술한 것으로, 수험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다.

나. 논제 제시의 유형

논술에서 발문은 제시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발문은 제시문과의 관계에 따라 논제 직접 제시형, 논제 부분 제시형, 제시문 독해 방향제시형으로 나뉜다.



<논제 부분 제시형>

이것은 발문에 논제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점을 설정하여 글을 쓰도록 하는 유형이다. 즉, 첫 문장에서 글의 독해와 관련한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점을 한정해 논술하도록 하는 문제다. 논제 부분 제시형은 ‘~을 논의의 근거로 삼아’ 또는 ‘~을 바탕으로’ ‘~을 활용하여’와 같은 형태로 많이 출제된다.

<예시> (가), (나), (다)는 환상, 신화, 축제와 같은 비일상적인 것들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제시문 (라)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정해 현대사회 안에서 비일상성이나 비현실성이 지니는 기능을 논하시오. (이화여대 논술고사 문제)

➡ 실습1) 논제를 분석하라!

다. 첨삭지도의 방향 - 논제의 시각화

논술시험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제의 요구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이다. 논제를 읽어가면서 핵심적인 명령어에 밑줄을 긋는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하여 시각화하면 논제 파악이 쉬워지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진다. 논제를 시각화할 때는 ‘무엇’과 ‘어떻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시> <가>의 그림과 설명이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에 제시된 데카르트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한 후, <가>와 <다>를 참고하여 미래 사회에서 새롭게 설정될 인간의 정체성 및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한양대 정시 논술고사 인문계 문제)

➡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각각 본론 1, 2, 3으로 구성해서 서술하면 된다.

논 술 의 내 용	형 식
① <가>의 그림과 설명이 의미하는 바	요약하라
② <나>에 제시된 데카르트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라
③ 미래 사회에서의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 및 인간과 기계의 상호관계	논술하라



2. 비판적·창의적·논리적 사고에 대한 침삭

가. 사진, 만화, 광고를 활용한 사고 과정 침삭 지도

1) 준비 단계

- ☐ 비판적·창의적·논리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2) 생각 열기와 메인아이디어(논지) 찾기

- ☐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라.
- ☐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내도록 하라.
- ☐ 사회적 쟁점에 대한 메인아이디어(논지)를 찾도록 하라.

3) 1차적 사고에서 종합적 사고로 전환하게 하라

- ☐ 단답형 답변 보다 종합적 사고를 물을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 ☐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여 의사소통하게 해야 한다.

나. 단편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종합적 사고 과정 침삭 지도

1) 창의적 사고

- ☐ 독창성 - 새롭고 더 나은 아이디어(독자적인 생각)
- ☐ 유연성 - 열린 마음의 사고(변화된 사태에 대한 적응성)
- ☐ 민감성 - 문제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의 정도

2) 비판적 사고

- ☐ 비판적 사고는 어떤 사건의 문제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요 의식이다
- ☐ 현상의 문제성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 ☐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적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3) 논리적 사고

- ☐ 종합적 사고 -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담는 형식과 틀
- ☐ 논점을 맞추는 능력 - 문제파악, 전략, 구성, 논증
- ☐ 연관 관계 구성 - 수집, 분석, 비교, 대조, 구성, 관계설정
- ☐ 논증과 추론 - 논리의 전개, 비판적 사고, 귀납 논증, 연역 논증



영화 『다크 나이트』를 활용한 논증과 논거 세우기		
1.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는 누구를 구할 것인가?(입장 선택과 근거 제시)		
주 장 의 틀	전제1	
	전제2	
	결론	
2. 자신이 배에 타고 있다면 상대방 배를 폭파시키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논 거 세 우 기	찬 · 반 입장 선택	
	전제(논거) ①	
	전제(논거) ②	
	전제(논거) ③	
	결론(논지)	

【부 록】

The TOP Edu-Maker

“최고의 교육메이커, 동부교육청”

꿈 · 보람 · 만족이 있는 활기찬 동부교육을 위한

동부 푸른 독·토·논 교육 추진 계획

2010.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http://dongbu.ice.go.kr>

동부 푸른 독·토·논 교육 추진 계획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동부 푸른 독·토·논」의 「독·토·논」은 「독서·토론·논술」의 첫 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동부 푸른」의 「푸른」은 동부교육청의 교육활동 목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I. 목 적

- | | |
|-------------------|-------------------------|
| ○ 중학생들의 논술능력 배양 | ○ 공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
| ○ 단위학교의 논술교육 활성화 | ➔ |
| ○ 소외계층에 논술교육기회 제공 | ○ 교육 양극화 해소 |

II. 추진 배경

- 대학 입시에서 논술시험의 비중이 높아져 학부모들의 관심이 급등
- 공교육의 논술 교육 기반이 미흡하여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발생
- 고등학교에 비해 지도교사, 자료, 방법 등에서 취약한 중학교 논술 교육 기반 조성
- 초·중학생 때부터 효과적인 논술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 대부분 논술 지도가 사교육에 의존함으로써 소외계층은 논술 교육의 기회 박탈
- 단위 학교의 교육활동이 독서 관련 행사에 치우쳐 토론·논술로 발전시켜야 할 계기 부족
- 통합교과보다는 국어과 위주로 이루어지는 논술 지도에 대한 편견
- 기존의 독서대회와 논술대회가 연계되지 못하고 토론활동의 기회 상실

III. 추진 방향

- 학부모 연수나 홍보를 통하여 논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촉구
- 공교육의 논술 교육 기반 조성으로 사교육비 증가 억제



- 지도교사의 양성, 자료의 개발, 지도방법의 구안 등 중학교 논술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 소외계층에게 논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청 주관의 방과후 학교 운영
- 단위 학교의 독서·토론 논술 교육활동과 적극적인 연계 추진
- 독서-토론-논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논술 지도 시스템 적용
- 통합 논술의 추세에 맞춰 교과 연합 팀티칭(Team Teaching) 도입
- 중학생 논술 지도 경험을 축적하여 일반화

IV. 세부 추진 계획

1. 동부 푸른 독·토·논 교육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가. 단위학교 독·토·논 팀 구성

- 1) 중학교에 구성된 독서 논술교육 추진팀(중등교육과 독서 논술교육 내실화 추진계획 참조)을 독·토·논 팀으로 활용
- 2) 구성 인원
 - 팀 장 : 팀원 중에서 1명 선임
 - 팀 원 : 국어, 도덕, 사회 교과 교사와 기타 희망하는 교과 교사로 교과 연합 팀 구성(5~6명)
- 3) 역 할
 - 동부 푸른 독·토·논 한마당 학교별 예선대회 추진
 - 기타 동부 푸른 독·토·논 계획의 학교 단위 사업 추진
 - 일반적인 단위학교 독서 논술교육 활동 추진

나. 동부 푸른 독·토·논 운영팀 구성

- 1) 동부 푸른 독·토·논 운영팀을 구성하여 독·토·논 교과연구회로 조직 운영
- 2) 독·토·논 교과연구회(동부 푸른 독·토·논 팀) 총회
 - 일 시 : 2010. 3. 22(월) 15:00~17:00
 - 장 소 : 인천여자중학교(도서실)
 - 대 상 : 동부교육청 독토논 운영팀 20명
- 3) 동부 푸른 독·토·논 교과연구회 임원 명단 :
 - 회장(논술팀장) : 김유리(연성중)
 - 부회장(토론팀장) : 이명문(인천해송중)
 - 부회장(독서팀장) : 지숙(인천논현중)
 - 총무 : 이성숙(연성중)



2. 교사 연수 및 학부모 연수

가. 동부 푸른 독·토·논 교사 연수

- 1) 목 적 : 중학교 논술지도 담당교사 연수를 통하여 고등학교에 비해 취약한 중학교 논술지도 교사 인력풀을 조성
- 2) 추진 계획
 - 일 시 : 2010. 4. 22(목) 15:00~17:00
 - 장 소 : 동부교육청 대회의실(4층)
 - 대 상 : 중학교 논술지도 교사 등 70명(학교별 2명)
 - 연수 내용
 - 논술지도 전문가 초청 연수 : 학교에서의 논술지도 방법

나. 동부 푸른 독·토·논 학부모 광장

- 1) 목 적 : 학부모 연수를 통하여 논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
- 2) 추진 계획
 - 일 시 : 2010. 5. 13(목) 15:00~17:00
 - 장 소 : 동부교육청 대회의실(4층)
 - 대 상 : 중학교 학부모 105명(학교별 3명)
 - 연수 내용
 - 논술지도 전문가 초청 연수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자녀 논술지도
 - 진학지도 전문가 초청 연수 : 논술을 비롯한 중학생의 진학 준비 전략

3. 동부 푸른 독·토·논 한마당

가. 목 적

- 1) 단위 학교의 독서·토론·논술 교육활동 활성화 계기 마련
- 2) 독서-토론-논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논술 지도 시스템 확립
- 3) 경시대회를 통한 중학생들의 토론·논술 능력 배양

나. 행사 구성

- 1) 독서마당 - 학교별 대표 독후감 경시대회
- 2) 토론마당 - 학교별 대표팀 간 토론 경시대회
- 3) 논술마당 - 학교별 선발 학생 개인별 논술 경시대회

다. 추진 일정

- 1) 각 학교로 동부 푸른 독·토·논 한마당 추진계획 알림 : 2010. 4월



- 2) 각 학교 자체계획에 의해 예선대회 시행 : 2010. 5월 ~ 7월
- 3) 학교별 본선 참가자 명단(원고) 제출 : 2010. 8. 25(수)
- 4) 논술마당 출제협의회 : 2010. 7월 ~ 8월
- 5) 독서마당 출제협의회 : 2010. 7월 ~ 8월
- 6) 토론마당 출제협의회 및 예선 원고심사 : 2010. 7월 ~ 8월
- 7) 동부 푸른 독·토 논 한마당 개최 : 2010. 9. 11(토)

라. 학교별 예선대회

- 1) 시 기 : 2010. 5월~7월 초
- 2) 장 소 : 각 학교
- 3) 개최 방법
 - 단위학교 독·토 논 팀이 주관하여 추진
 -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되 각 마당별로 다양한 방법 가능

바. 각 마당별 세부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4월중 알림)

- 1) 독서 마당(구. 동부가족독서대회)
 - 일 시 : 2010. 9. 11(토) 09:00~13:00
 - 장 소 : 구월여자중학교
 - 대 상 : 각 중학교 대표 학생 3명(총 105명) 및 학부모 희망자
 - 행사 진행 : 개인별 독후감 쓰기 응시
- 2) 토론 마당
 - 일 시 : 2010. 9. 11(토) 09:00~13:00
 - 장 소 : 구월여자중학교
 - 대 상 : 각 지구별 대표 토론팀(각 2팀 계 8팀, 총 16명)
 - 행사 진행 : 지구별 원고 예선 통과한 8개팀 토너먼트로 토론 경연
- 3) 논술 마당(구. 동부중학생독서논술대회)
 - 일 시 : 2010. 9. 11(토) 09:00~13:00
 - 장 소 : 구월여자중학교
 - 대 상 : 학교별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한 대표 학생 3명(총 105명)
 - 행사 진행 : 개인별 논술시험 응시



4. 동부 푸른 독·토·논 교실

가. 목 적

- 1) 저소득계층에게 논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
- 2) 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 3) 주5일수업제 토요일휴업일 ·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만족도 제고

나. 추진 일정

- 1) 동부 푸른 토요 독·토·논 교실
 - 가) 각 학교로 토요 독·토·논 교실 추진계획 알림 : 2010. 4. 13(화)
 - 나) 독·토·논 교실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 선정 : 2010. 4. 13(화)
 - 다) 지도교사 및 학생 선발 : 2010. 4월 중
 - 라) 참가학생 : 논술에 관심 있는 성실한 학생(저소득층 포함)
 - 마) 토요 독·토·논 교실 개강 : 2010. 4. 24(토)
 - 바) 연간 추진 일정 : 2010. 4. 24 ~ 2010. 12월
매월 2주 또는 4주 토요일 09:00~13:00 운영
- 2) 동부 푸른 여름 독·토·논 교실
 - 가) 각 학교로 여름 독·토·논 교실 추진계획 알림 : 2010. 6. 8(화)
 - 나) 지도교사 및 학생 선발 : 2010. 7월초
 - 다) 참가학생 : 논술에 관심 있는 성실한 학생(저소득층 포함)
 - 라) 여름 독·토·논 교실 개강 : 2010. 7. 19(월)
 - 마) 추진 일정 : 2010. 7. 19(월) ~ 7. 23(금) 09:00~16:30 운영

다. 독·토·논 교실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 선정

- 1) 일 자 : 2010. 4. 13(화)
- 2) 방 법
 - 4개 지구별 중심학교와 협력학교 선정
 - 시교육청 지정 논술지도 중심학교, 동부교육청 지정 독·토·논 중심학교
(만수여중, 구월여중, 연성중, 인천중)
 - 지도교사와 학생 선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학교를 협력학교로 지정
 - 중심학교에는 교사 지도수당과 운영비를 지원



라. 지도교사 및 학생 선발

- 1) 기 간 : 2010. 4월 중
- 2) 방 법 : 중심학교 주관으로 협력학교의 도움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고, 지도교사를 선발
- 3) 선발 인원 : 중심학교별 교사 4명, 학생 2개반 40명
 - 만수지구(12교), 구월지구(9교) : 학교별 3 - 4명,
 - 연수 1지구(7교), 연수 2지구(7교) : 학교별 4 - 5명

마. 토요 독·토·논 교실 개강

- 1) 일 시 : 2010. 4. 24(토) 09:00~13:00
 - ※ 개강식 : 4. 24(토) 09:00
- 2) 장 소 : 4개 지구 지정 「토요 독·토·논 교실」 학교
- 3) 대 상 : 4개 지구 희망학생 160명
- 4) 내 용 : 토요휴업일을 이용한 논술지도 방과후학교(4개 중심학교) 운영

바. 동부 여름 독·토·논 교실(구. 동부논술마당) 운영

- 1) 기 간 : 2010. 7. 19(월) ~ 7. 23(금)
 - ※ 개강식 : 7. 19(월) 09:00
- 2) 장 소 : 구월여자중학교 예정
- 3) 대 상 : 학교별 신청학생(저소득층 우선) 2~3명, 총 60명
- 4) 내 용 :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논술지도 교실 운영
 - ※ 세부계획은 별도 알림

5. 우수사례 탐색 및 일반화

가. 우수사례 탐색 및 일반화

- 1) 탐색 및 일반화 일정 : 2010. 9월말 ~ 10월초
- 2) 탐색처 : edu-i 및 동부교육청 홈페이지
- 3) 탐색 내용
 - 독서마당 우수독후감 : 30 작품
 - 토론마당 우수발표 사례 : 8 작품
 - 논술마당 우수답안 모음 : 30 작품

나. 동부 푸른 독·토·논 자료집 제작·보급 : 10월말



V. 주요 일정

세부 사업명		시 행 시 기(월)											
		3	4	5	6	7	8	9	10	11	12	1	2
독·토·논 팀 조직 운영		○	○	○	○	○	○	○	○	○	○		
독·토·논 학부모 광장			○										
독·토·논 교사 연수			○	○									
독·토·논 한마당 학교 예선					○	○		○					
독·토·논 한마당	독서마당							○					
	토론마당							○					
	논술마당							○					
독·토·논 교실			○	○	○	○		○	○	○	○		
우수사례 탑재 및 일반화									○				

VI. 기대 효과

- 논술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안 해소
- 교사, 학부모의 중학생 논술 지도에 대한 인식 전환
- 공교육의 논술 교육 기반 조성으로 사교육비 증가 억제
- 저소득계층에 논술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 양극화 완화
- 중학생 논술 지도 경험의 축적, 새로운 지도 방법 개발
- 교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의 확산으로 교실수업 개선에 기여
- 독서 - 토론 - 논술의 연계로 체계적인 논술지도 체계 정착

VII. 행정 사항

※ 각 학교 독·토·논 행사 참여자 명단 제출

- 제출 기한 : 2010. 4. 16(금) 12:00까지
- 제출 방법 : <양식 1> - 중등교육과 조영식 장학사
아이메신저 또는 e-mail(cho1006@hanmail.net)
- <양식 2> - 각 지구별 중심학교 책임교사 e-mail
- 제출 서식 : 붙임 2 <양식> 참조



<양식1> 제출 : 중등교육과 조영식 장학사

아이메신저 또는 e-mail(cho1006@hanmail.net)

학교명	분 야	교사성명	담당과목	담당업무	H·P	e-mail
	독·토·논 팀장					
	토요논술 교실강사 참여 교사					
	교사연수 참여					
·	·	학 생		학 부 모		전화번호
		학년 반	성 명	관계	성 명	
	학부모 광장 참여 학부모	-				
	토요논술 교실 참여 학생					



<양식2> 제출 : 각 지구별 중심학교 책임교사 e-mail

학교명	분 야	교사성명	담당과목	담당업무	H · P	e-mail
	토요논술 교실강사 참여 교사					
		학 생		학 부 모		전화번호
		학년 반	성 명	관 계	성 명	
	토요논술 교실 참여 학생					

※ 각 지구별 중심학교 책임교사 명단

지구별	학 교	성 명	전 화	e-mail	배정 학생수
만수지구	만수여중	심은영	016-264-6753	simvanjang@hanmail.net	4명
구월지구	구월여중	서연수	016-767-9894	sys9894@hanmail.net	4명
연수2지구	인천중	원향숙	019-301-4848	weon88@hanmail.net	5명
연수1지구	연성중	정은순	019-367-4639	dmstnswjd@hanmail.net	5명



■ 연 수 일 정

날 짜	구 분	시 간	주 제	강 사
4. 22 (목)	등록	~ 14:50	등 록	
	개강식	15:00 ~ 15:30(30')	개강식 및 인사말씀	동부교육청 교육장 김진석
	1	15:30 ~ 16:20(50')	창의적인 논술문 쓰기 방법	미추홀외고 교사 육우균
	2	16:30 ~ 17:20(50')	논술 첨삭지도의 실제	인천남동고 교사 최남현
	3	17:20 ~ 17:30(10')	폐강식 및 격려말씀	인천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고삼규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 61 -

꿈·보람·만족이 있는 활기찬 동부교육
2010 중학교
논술지도교사 연수 교재

- 
- 발행일 : 2010. 4. 22.
 - 발행인 :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 교육장 김 진 석
 - 편집인 : 중 등 교 육 과 장 장학관 고 삼 규
 - 담 당 : 중 등 교 육 과 장학사 조 영 식
 - 발행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로 1241

TEL : (032) 460-6222

